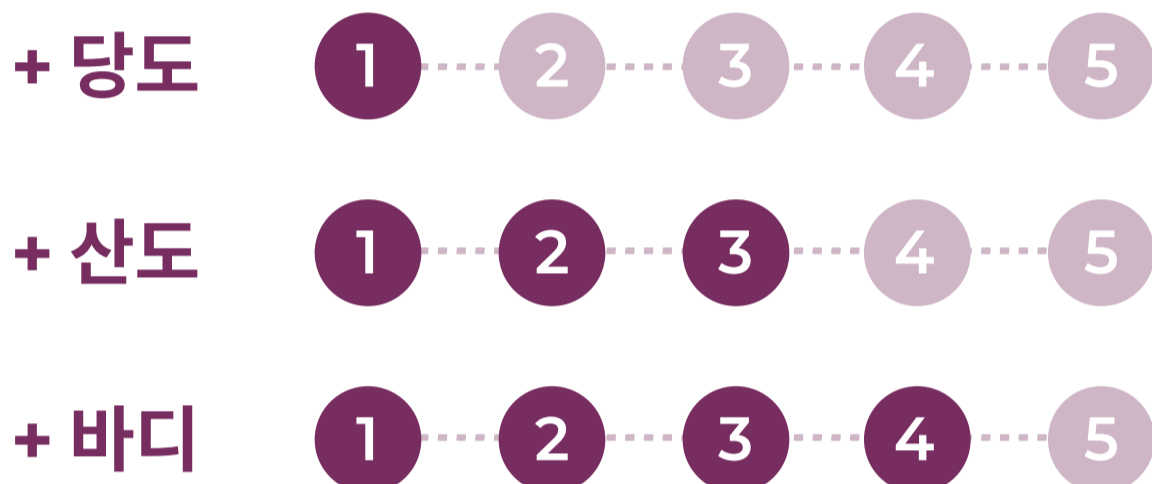




Louis Jadot(Domaine Duc de Magenta)
Puligny-Montrachet 1er Cru Clos de la

루이자도 (도멘 뉘 드 마젠타) 뿔리니 몽라세 프리미에 크뤼 '끌로드 라 가렌느'

순수하고 귀족적인 스타일의
최상급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



Type	화이트 와인
Country / Winery	프랑스 > 부르고뉴 / 루이자도
Grape Variety	샤르도네 100%
Capacity	750ml
Food Matching	화이트 와인으로 조리한 조개류, 소스에 졸인 생선요리, 닭이나 오리 간 파테, 윈스터나 콩떼 등 잘 숙성된 치즈

Information

순수하고 귀족적인 스타일의 화이트 와인으로, 복숭아 향과 아몬드 향, 포도 고유의 프루티함과 오크 향이 풍부한 레이어를 만들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.

은은한 산미가 감미로운 맛을 돋보이게 한다.

10~15년 이상 숙성할 수 있으며 세련되고 복합적인 풍미의 오프 퀴진과 잘 맞는다.

Tip

| 샤사뉴 몽라세에 위치한 '도멘 뉘 드 마젠타'는 부르고뉴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도원으로, 루이자도가 포도 재배부터 와인 양조, 유통을 맡고 있다. 4헥타르에서 샤사뉴 몽라세 프리미에 크뤼 '모르조'와 뿔리니 몽라세 프리미에 크뤼 '끌로드 라 가렌느' 두 가지 화이트 와인을 생산한다. '끌로드 라 가렌느'는 플라티에 프리미에 크뤼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뉘르소와 몽라세의 중간 즈에 있다.